

CHINA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CHINA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2012 중국 출판 산업 10대 키워드』

◎ 작성 취지

- 2012년 중국 출판산업의 최신 정책 및 주요 사건을 조망하여 중국진출 전략 및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

※ 출처 : <출판참고(出版参考)> 잡지 발췌

◎ 작성 순서

「2012 중국 출판산업 10대 키워드」

- 중국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 참고서 출판 진입 허가
- 프로젝트 선도 전략
- 산업 구조조정 업그레이드
- 민영 도서 출판업 지원
- 신문 출판 개혁 심화
- 저작권법 수정
- 전자상거래 가격 혼전
- 농가의 서재시대
- 학술 저서 출판의 규범화

1. 2012 중국 출판 산업 10대 키워드

■ 중국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 1월 9일 신문출판총서는 2012년 “1호 문건” -〈중국 신문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我国新闻出版业走出去的若干意见)〉을 통해 현재 중국 신문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직면한 기회를 분석하고 신문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함. 또한 향후 신문 출판 산업 해외진출의 주요 목표와 8개 항목의 핵심 임무에 대해 명시하고 신문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10대 신정책(十条新政)”을 제시함
-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런던도서박람회에 중국은 주빈국 자격으로 참가함. 본 박람회는 약 180여 개의 출판사와 1만 여종의 도서가 전시되었고 3,270여 개의 중외 저작권 무역 협의가 이루어짐. 그 중 수입과 수출의 비율은 1:1.32임
- 19회 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 사흘간 중국 국제박람센터(신관)에서 개최됨. 박람회 기간 중 약 3,298 항목의 저작권 무역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수입과 수출 비중은 1:1.30임
-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중국대표단의 저작권 수출량은 2,409 항목에 달함

○ 해설

-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 출판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중국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이며 기초를 다지는 과정임. 이렇게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 신문출판총서는 2012년 “1호 문건”을 발표하였고 이는 정부차원 최초의 중국 출판 산업 “해외진출”에 관해 전면적으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임
- 중국의 규범화된 저작권무역은 1992년 10월 <베른조약(伯尔尼公约)>, <세계저작권조약(世界版权公约)>에 가입 이후 정립되었음. 그러나 가입 이후 중국의 저작권 무역의 적자폭은 빠르게 상승하였고 2006년에 이르러 최고에 달함(수출 수입 비율 1:6). 2006년 신문출판총서와 국무원 신문부처는 “중국도서의 해외 보급 플랜(中国图书对外推广计划)”을 공동으로 발기하였고 2009년부터 “중국 고전도서의 국제 출판 프로젝트(经典中国国际出版工程)”를 시행함. 현재 중국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2011년 수출과 수입의 비율이 2:1까지 하락함. “추취저우(出去走)”¹⁾에서 “저우추취(走出去)”²⁾까지 중국 출판 산업은 이미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음. 그러나 “저우추취”보다 더욱

중요한 3)“저우진취(走进去)”는 진정으로 중국 도서와 중국 문화로 하여금 국외 주류 사회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국 출판업계의 공동 노력이 기대되는 부분임

■ 참고서 출판 진입 허가

- 2월 8일 발개위(发改委), 교육부(教育部), 신문출판총서, 국무원(国务院) 4개 부처는 <초중고 참고서 사용관리 강화에 관한 업무 통지(关于加强中小学教辅材料使用管理工作的通知)>를 발표. 학교에서 사용하는 참고도서에 대해 “한 과목 한 참고서(一科一辅)”의 기본 원칙을 제정하고 참고도서의 심사와 추천, 발행 및 집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 4월 19일 발개위, 교육부, 신문출판총서는 <초중고 참고서 가격 관리감독의 통지(加强中小学教辅材料监管的通知)>를 발표하여 추천 목록에 있는 참고도서의 최고 판매가격과 최저 할인 폭을 지정함
- 4월 20일 신문출판총서는 일일이 출판 업체들의 참고 도서 출판 자질 및 능력을 확인하였고, 총 200여개 이상의 출판사가 참고서 출판 자질을 인정받음. 그 중 80여개 출판사는 전 과목 출판 자질을 획득함. 신문출판총서의 요구에 따라 2012년 6월 1일부터 초중고 참고 도서 출판 가격을 획득하지 못한 출판업체의 경우 일체 초중고 참고도서를 출판하지 못하도록 함

○ 해설

- 중국 도서 출판 산업은 참고서 판매에 의존하는 현상이 매우 두드러졌음. 중국 도서시장에서 참고서의 생산총액은 60%가 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교육 관련 출판 산업의 이윤은 전체 출판 이윤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참고서 출판 산업의 거액의 이윤과 시장진입 장벽 제한의 부재는 마구잡이식의 넘쳐나는 참고서 출판을 초래함
- 참고서 출판의 진입 허가제도 시행은 참고서 출판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고, 참고서 출판의 시장질서 재정비에 유용할 것임. 그러나 이와 함께 국진민퇴(国进民退)의 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됨. 규범화된 관리의 전제조건 하에 민영 출판업체로 하여금 참고서 출판 경쟁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지지를 보내 독점 시장을 타파하도록 하고 중국 출판과 교육 활력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자 함
- 한마디로 참고 출판 진입 제도의 시행은 교육 출판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참고서 출판업의 거품을 없애 대중출판, 전문출판, 교육출판 삼자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킬 것임

1) 중국 출판 산업이 수출되어 피동적으로 소개되는 것
 2) 중국 출판 산업이 자주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 하는 것
 3) 중국 출판산업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 프로젝트 선도 전략

- 2월 15일 <국가 “12차 5개년 계획 문화개혁발전계획(国家十二五”时期文化改革发展规划)>이 발표되었고 3월 5일 2012년 국가출판기금의 투자 지원 명단이 공표됨. 총 205개의 프로젝트가 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규모는 3.46억 위안임
- 5월 16일 <2013년 국가 출판기금 프로젝트 신청 지침(2013年度国家出版基金项目申报指南)>이 발표됨. 10월 18일 2013년 국가 출판 기금 프로젝트 심의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10월 29일 최종평가단회의가 소집됨
- 6월 12일 “12차 5개년 계획” 국가 핵심 출판물 출판 계획의 프로젝트 보충 여부 심의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심의결과 기존의 2,000여개의 프로젝트가 3,000여개로 확충됨
- 10월 30일 <국가 12차 5개년 계획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 계획(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이 실시됨. 동 계획은 “12차 5개년 계획” 중 국가의 핵심 도서, 음반 및 영상물, 디지털출판물의 출판 계획 중 “소수민족 출판 계획(少数民族出版规划)”을 보충하고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총 규모는 284 종에 이룸. 그 중 도서가 214종, 음반 영상물 65종, 디지털출판물 5종으로 구성되었으며 61개의 출판업체가 출판 책임을 맡음
- 11월 28일 <신문 출판 개혁 발전 프로젝트 2013년도 프로젝트 신청 지침(新闻出版改革发展项目库2013年度项目申报指南)>을 발표함

○ 해설

- 프로젝트 선도 전략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신문 출판 산업 발전의 핵심 전략이며 프로젝트 시행 선도 전략의 시행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신문 출판 산업 발전의 새로운 요구사항임.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신문 출판 산업의 핵심 프로젝트 창립의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마다 신문 출판 산업의 핵심 프로젝트 투입 비용을 확대하고 신문 출판 산업의 핵심 프로젝트 시행의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임. 또한 신문 출판 산업에 대한 핵심프로젝트의 영향력을 높이고 핵심프로젝트가 산업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도록 함
-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핵심프로젝트의 보고, 평가, 심사, 지원은 이미 긍정적인 순환과정을 형성하였고 “12차 5개년 계획” 국가 핵심 도서 출판 계획, 신문 출판 산업 개혁 발전 프로젝트, 국가출판 기금(国家出版基金), 중앙문화산업발전(中央文化发展专项基金) 등이 공동 조직을 구성하여 문화 산업 프로젝트의 추진 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 산업 구조조정 업그레이드

- 2월 20일 경동(京东)⁴⁾은 디지털 도서의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함. 경동 디지털도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PC용, 안드로이드 시스템용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선보이며 디지털도서 B2C시장에 진입함
- 4월 11일 “디지털 출판(数字出版)”의 첫 오프라인 상점인 “WenXuan 디지털 출판 체험관(文轩数字出版体验店)”이 중국 청두(成都)지역에 설립됨. 체험관의 주력 서비스인 “셀프 출판 서비스(自主出版服务)”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함
- 5월 18일 광저우 “YiBoShi(易博士)” 디지털 출판 그룹은 선전(深圳)에서 개최된 국제 문화 산업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도서의 비즈니스 모델인 “SaiLunZhi(赛伦纸)” 신제품 발표회를 가짐
- 6월 16일 상하이 징안구(静安区) 신화서점 “신화e지점(新华e店)”을 핵심으로 “iMovie” 영화관과 시청관을 도입하여 기존의 일반 서점에서 대형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함. 이는 독자들에게 독서와 문화 교류의 분위기를 제공하고, 집과 같은 종합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함
- 7월 25일 당당왕(当当网)은 전자리더기인 “Doucon”을 시장에 선보임. 3G혹은 Wifi를 이용하여 당당왕의 인터넷서점의 디지털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게 함
- 10월 30일 당당왕은 타오바오 Tianmao(淘宝天猫) 내 2개의 플래그십스토어를 개설하여 80만 여종의 도서와 30만 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이로써 당당왕은 Tianmao가 B2C 전략을 시행한 이후 최대 규모의 상점이 됨
- 11월 21일 신문출판총서는 <MPR 출판물 시리즈의 국가표준에 관한 통지(关于贯彻实施<MPR出版物>系列国家标准的通知)>를 발표하여 미디어 인쇄 도서 출판물의 기술 응용을 확대함

○ 해설

- 디지털 기술이 출판 산업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전반에 응용되면서 출판 산업의 산업 구조 전환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 출판 산업의 업스트림은 성숙기를 거쳐 각 출판 그룹과 출판사, 민영 출판사들로 하여금 잇따라 디지털 출판 영역에 진입하도록 함

4) 중국 온라인 쇼핑몰, <http://www.360buy.com/>

- 이밖에, 일부 보류되거나 혹은 대부분 보류된 전통 도서 출판 방식을 기초로 하는 복합 출판이 새로이 부상하였음— “SaiLunZhi(赛伦纸)” 와 MPR모델. 오프라인 서점은 도서의 판매와 인쇄 수요를 결합하여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본 서비스를 확장하여 신화문화Mall(新华文化Mall)을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정함. 온라인 서점은 종이책부터 디지털 도서까지, 나아가 독서 리더기와 종합 인터넷 쇼핑물에 입점하는 등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음
- 융합발전, 기초 서비스 확충은 이미 출판 산업 구조조정의 공통된 인식임을 알 수 있음

■ 민영 도서 출판업 지원

- 2월 21일, 항저우시(杭州市)는 매년 시 재정 중 약 300만 위안을 민영서점 발전 지원의 특정 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선언하고, 7월 23일 수천여 업체 중 선별 된 16개 지원 대상의 명단을 발표함
- 2월 28일 상하이시(上海市) 신문출판국(新闻出版局)은 2012년부터 매년 500만 위안을 오프라인 서점 지원 자금으로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특히 전문화된 포지션으로 브랜드 영향력을 갖춘 민영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힘. 4월 23일 상하이시는 첫 정부의 후원을 받을 35개 오프라인 서점 명단을 공개하였고 총 25개 민영서점이 포함됨
- 6월 29일 신문출판총서는 <민간자본의 출판경영활동 참여에 관한 시행 세칙(关于支持民间资本参与出版经营活动的实施细则) 이하 세칙> 발표를 통해 민간자본의 출판경영 활동에 좋은 환경과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심도 있는 개혁을 지속할 것과 시장진입을 규범화할 것을 제기함. 또한 민간자본의 출판경영 활동 참여의 발전을 위해 10조항의 시행 세칙을 발표하고 “민간자본의 출판 산업으로의 지속적인 개방(继续向民间资本开放出版业)” 에 대한 신호탄을 보냄

○ 해설

- 지난 30여 년간 중국 민영 도서 출판업은 무에서 유를,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비 규범화된 상태에서 점차 규범화된 발전 과정을 거쳐 왔고, 이미 중국의 도서 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함.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민영 도서출판 기관이 다루는 도서의 종류는 산업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며, 일반도서 출판 영역에서는 약 80%~90%의 베스트셀러 브랜드가 민영도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신문출판총서는 <신문출판 시스템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推进新闻出版体制改革的指导意见)>에서 “비공유제자본(非公有制资本) 정책이 윤택하는 영역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의 진입을 격려, 지지, 인도할 것” 을 제시함. 이는 민영 도서 출판업이 일반적인 “신흥 출판 생산력” 으로서 처음으로 중국 정부 문건에서 인가를 받은 경우임.

그 후, <문화 시스템 개혁,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대번영 추진을 위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문제의 결정(中共中央关于深化文化体制改革, 推动社会主义文化大发展大繁荣若干重大问题的决定)>(제7기 6중), 국무원의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产业振兴规划)>, 신문출판총서의 <출판미디어그룹 개혁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出版传媒集团改革发展的指导意见)>은 모두 민영 도서 출판 산업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임

- 이번 <세칙>의 발표는 신문출판총서가 <민간자본의 양호한 발전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에 관한 국무원 사무실의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鼓励和引导民间投资健康发展的若干意见)>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한 것으로 10개의 시행 세칙은 높은 활용성을 지님. 민영 서점에 대한 상하이시와 항저우시의 자금 보조는 민영서점에 대한 정부의 첫 직접 보조금 지급으로 이는 정부 자금 지원 방면에 있어 민영 출판업이 국유 출판업과 같은 선상에 놓인 것으로 평가됨
- 국유 도서 출판과 민영 도서 출판업은 중국 도서 출판의 주요 구성원으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상호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일정 부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민영 도서 출판업에 대한 합리적인 인도와 표준, 지지를 통해 국유 도서 출판업과 함께 중국 출판 산업의 생산력을 더욱 높이고 중국 출판 산업의 발전 촉진에 큰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함

■ 신문 출판 개혁 심화

- 2월 27일, 신문출판총서는 <출판미디어그룹개혁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出版传媒集团改革发展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출판미디어그룹의 시스템 개혁을 격려하고 관리 및 신기술 응용을 강화하고 전략적 합병과 해외진출을 격려함. 또한 구체적인 보장 대책을 제시하고 신문 출판 산업의 개혁 속도를 높임
- 7월 30일 신문출판총서는 <신문잡지 편집부처 체제 개혁 실시 방법(关于报刊编辑部体制改革的实施办法)>을 제정하여 신문출판총서의 승인을 받아 출판 활동을 하는 업체들과 국내 통일된 연속 출판번호를 획득하였으나 독립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은 신문잡지 편집 부처에 대해 체제 개혁을 안배함
- 9월 2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2년 출판미디어그룹 주요 담당자 좌담회에서 LiuBinJie(柳斌杰)는 “10년간의 개혁기간을 통해 경영성을 띠는 출판업체들은 대부분 기업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내부 경영 관리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현대화된 기업 제도가 완벽히 형성되지 않았고, 그 활력이 100% 발휘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2차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함
- 12월 24일 신문출판총서의 당서기, 부서장 JiangJianGuo(蒋建国)는 중앙 산업 간행물 보고 회의에서 산업별 전문 간행물 출판 업체들의 개혁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 전환이 가능한 경우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미 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체제 전환을 하도록 하고, 조건이 구비된 경우 자본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 해설

- 2010년 말,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망원출판사(盲文出版社)등 소수의 공익성 출판사를 제외하고 전국의 경영 성격을 띠는 출판사로 하여금 모두 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함. 2012년 말까지 전국 총 38개 정당 기관지 발행 업체와 3,271개의 비정치류의 간행물 발행 업체를 기업 체제로 전환하였음
- 그러나 현대형 기업제도는 단번에 성공을 거둘 수 없음. 기업 체제로의 전환은 개혁을 위한 첫 단계일 뿐임. 지속적인 사상 해방을 기초로 하여, 모든 산업이 심화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현재 성과를 더욱 견고히 하며 법인관리 구조를 더욱 개선하여 내부 경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전환을 이뤄야 함. 따라서 신문출판총서는 “재개혁(再改革)”을 호소하고 있으며, 개혁은 여전히 중국 출판업계의 핵심 주제임.

■ 저작권법 수정

- 3월 31일 신문출판총서는 공고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개정초안)에 관한 사회의견을 공개 수렴하기 시작함. 저작권법 초안 원본을 공개하고 초안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며 의견 제출의 방법과 방식을 공개함
- 7월 6일 신문출판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개정초안 2차 원고)에 대한 사회의견을 공개 수렴함
- 10월 31일 신문출판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개정초안 3차 원고)을 발표함

○ 해설

- 저작권은 현대 상업출판의 초석임.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은 1991년 시행되었고, 2001년 WTO의 요구에 맞춰 1차 수정을 진행하였음. 2010년 들어 WTO의 중국 지식재산권 법 집행에 관한 분쟁의 결과 <물권법(物权法)>에 맞추어 소폭 조정함
- 2차 수정은 2011년 7월 시행됨. 2012년 3월 말 개정초안 1차 원고가 발표된 후 국내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관련 부처와 법원 시스템, 교육연구 시스템, 음악계, 온라인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국내외 다양한 조직, 단체 개인으로부터 전달된 의견 및 건의 사항이 약 1,600여건에 달함. 2차 원고에 대한 의견 및 건의 사항은 217건에 이룸. 이러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입법방식의 도입으로 각계각층의 높은 확신을 얻는데 성공함

- 또한 이번 수정은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전 사회의 지혜를 모으고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근래 드물었던 저작권 입법 업무를 절정에 달하도록 하였으며 출판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의 법률적 기초를 다졌음

■ 전자상거래 가격 혼전

- 2012년 3C와 여러 상품에서 기타 영역의 온라인 쇼핑몰 가격 전쟁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 경동(京东), 수닝이우(苏宁易购), 1호점(1号店), 텡쉰(腾讯) 티엔미야오(天猫) 등의 온라인 쇼핑몰이 도서 판매에 뛰어들어 기존의 당당왕과 아마존 두 업체가 점령하던 온라인 도서 출판 영역을 침범하고 있음
- 시장의 새로운 참여자는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기존의 업체들은 자신들의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가격 전쟁을 펼치고 있음

○ 해설

- 할인폭을 높여 이윤폭을 낮추어보아도 도서업계의 높은 영향과 낮은 출고가격은 도서 판매 수익이 광고비용보다 낮은 현실. 즉 도서 판매 이윤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거의 없으며, 도서 판매 쇼핑몰의 가격 전쟁은 현재 진행형임
- 도서 판매의 가격 전쟁에 불안감을 가진 출판사들은 “양치기의 거짓말”을 외치거나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재 도서 판매 업계는 기존의 전통적인 판매채널이 점차 축소되고 온라인 쇼핑몰이 확대되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음. 최근 출판 산업 업계는 점차 온라인 판매 채널로 판매망을 치우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베스트셀러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한 빠른 판매로 출판사로 하여금 발행 실적을 빠르게 달성하도록 함. 혹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도서 판매는 죽기를 기다리는 행위이지만 온라인 쇼핑몰 내의 판매를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함
- 그러나 도서의 할인가가 점점 낮아질수록 오프라인 서점이 온라인을 통한 도서 입고에서 출판사로 넘겨지는 역류현상인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출판사가 온라인 쇼핑몰의 판촉 행사를 거절하였을 경우 도서의 “책장 철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케팅 수단의 일종으로 적절한 가격전은 질책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현재 업체들이 직면한 이러한 수준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음. 가격전은 한편으로 독자들을 매료시켰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들의 마음속으로 정해둔 도서 구매 가격을 점차 낮추도록 하여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입장에서 가격전은 자본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독자들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침
- 가격만을 고려한 나머지 만약 자본이 신속하게 보충되지 못하거나 판매가 이윤 창출로 이

어지지 못하는 경우 자본을 모두 소진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최근 공동구매 웹 사이트들의 잇따른 파산은 경고음을 보냈음. 기업의 발전을 위해 2년 전부터 본인들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동구매 상품의 혜택을 보조하였고 그 결과 현재 운영 중인 업체는 절반에도 이르지 못함

- 지속적이고 통제되지 않으며 마지노선이 없었던 가격전쟁은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 모델의 거대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음. 창의적인 경쟁모델을 통해 속도 혹은 서비스 면에서 각자의 특화된 경쟁력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온라인 쇼핑몰을 구원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출판 산업의 발전 희망이 될 수도 있음

■ 농가의 서재시대

- 8월 신문출판총서는 농가의 서재 만들기 작업이 전면 시행되었음을 선포함. 이번에 지어질 농가 서재는 약 60만 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국 기본조건의 행정구역을 대부분 포괄하는 범위임. 이는 기존에 제정된 “12차 5개년 계획” 말기까지 완성하기로 한 목표를 약 3년 앞당긴 결과임

○ 해설

- 농가 서재 건설 사업은 사회주의 신(新)농촌 건설의 중요한 조치로, 신(新)농민을 양성하고 신(新)문화를 세우는데 기초 작업으로, 농가 서재 건설 사업은 책과 간행물이 부족했던 현상을 대부분 해결함. 단지 몇 년간의 기간 동안 농가 서재 건설 사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였고, 시행 초기 시범사업 단계를 앞당겨 사업을 완성하기까지 과정은 전국 신문출판 관련 부서의 견고한 전투력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사례임
- 농가 서재 건설 사업의 시행은 출판 산업 발전의 큰 계기임. 5년간 전국의 누적 투자 자금은 120.24억 위안이며 9.4만권의 도서, 5.4만 부의 간행물, 1.2억 장의 음반 및 영상물이 배송될 계획 임. 흑자는 출판사와 신화서점의 많은 부분의 업무량에 해당하는 이 규모에 대해 출판업계의 거대한 연회로 비유하기도 함
- 농가 서재 건설 시대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 연회의 폐막이 선포되고 많은 출판사와 서점으로 하여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일에 직면해 있을 것임. 또한 농가 서재 시대 후반부에는 이미 설립된 농가 서재가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검증이 필요함

■ 학술 저서 출판의 규범화

- 9월 4일 신문출판총서는 <학술 저서 출판 규범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学术著作

出版规范的通知)이하 통지>의 발표를 통해 출판 업체들의 학술 저서 출판 규범화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함. 또한 학술 저서 출판 규범의 집행은 중국 출판 정부 수상자, 국가 우수 도서 추천, 국가 중요 출판 프로젝트와 국가 기금 검수, 출판업체 연감, 등급평가 등 업무의 중요한 조건임을 명시함

- 10월 31일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The Commercial Press(商务印书馆), 산리엔서점(三联书店),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社科文献出版社) 등 50여 개 학술 저서 핵심 출판 업체들은 연합하여 <제안서(倡议书)>를 발표함. 동 <제안서>를 통해 출판 업체들로 하여금 <통지>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킬 것을 호소하고 중국 학술 저작 출판의 퀄리티와 수준을 높이고 중국 학술 저작의 창의적 능력을 높이는데 본보기가 될 것을 요청함

○ 해설

- 학술 출판은 출판 산업의 기초로, 높은 퀄리티의 학술 출판은 학술 연구를 촉진시키고 발전 시킴. 또한 학술성과의 유포에 있어 대체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며 이는 문화 강국의 중요한 부분임. 그러나 현재 학술 출판 현황은 낙관적이지 못함. 학술 출판의 규범화는 학술계와 출판계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학술출판 규범 위배는 일종의 사회 문제임. 따라서 학술 출판 기술 규범 제정은 가장 기초적 단계로 소통하고, 틀어막고 인도하고 방어하는 것 모두를 결합하여 계량화된 학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즉 이를 통해 학술 개제 소통을 원활히 하고, 학술 내용의 퀄리티가 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학술 출판 후원을 엄격히 하고 후원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산업 자율 규정을 이끌어 출판 브랜드화를 창출하는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병행해야 함. 끊임없는 관찰은 학술 출판을 점차 규범화하도록 할 것임. 학술 출판의 규범화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판단이 우세함